

일본건설사, 동북지역 복구수요에 본격 대응

일본종합건설회사들이 동일본 대지진 재해복구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, 동북지역에 인재와 첨단기술을 집중 투입. 동북지역은 향후 3년간 약17조 엔 규모의 부흥수요 발생할 것으로 전망

□ 동북지방 복구수요 전망

- 2012년에는 동북 대지진 복구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건설시장이 대폭 확대될 전망
 - 닛케이신문에 의하면, 일본의 2010년 건설시장 규모는 약41조 엔으로 92년의 84조 엔보다 50%이상 축소되었음
 - 이는 공공투자사업의 축소, 제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요인으로, 동 기간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498만명(약20%) 감소
 - 2012년도에는 동북 대지진 복구사업을 본격화되어 건설투자가 작년대비 13%증가한 47조 엔으로 3년만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국토교통성에 의하면, 건설투자증가로 약57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. 건설투자의 약55%를 차지하는 민간건설투자도 주택착공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

□ 일본건설업의 동북지역 수요 대응 전략

- 일본종합건설사는 향후 3년간 17조 엔의 부흥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지방에 인재와 첨단기술을 집중 투입한다는 전략

- * 인재파견회사 인텔리전스에 의하면, 향후 3년간 부흥관련의 건설수요는 약17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

<인재확보 및 배치 움직임>

- 시미즈건설 등 대기업은 동북지역의 인원을 10~20% 늘릴 계획
 - 시미즈건설은 토목부문의 시공담당자를 약20% 늘리고, 가시마, 다이세이건설도 약10%정도 늘릴 계획
 - 오오바야시구미는 작년 12월, 동북지점에 지진재해부흥종합공사사무소를 설치. 시라이시사장은 산리쿠자동차도로 등을 수주하기 위해 “이미 100~200명 정도 증원할 계획”을 마련했다고 언급
 - 해양토목공사 전문인 고요우건설(五洋建設)은 해안제방을 높이는 공사수주를 목표로 영업을 강화. 인재부족 가능성을 대비하여, 정년퇴임한 기술자를 재고용할 계획
 - 일본건설업연합회는 국토교통성, 피해지역의 자치단체, 중소건설회사단체등과 연락협의회를 설치하고, 인재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정 작업에 착수했음

<신기술 개발 및 도입 움직임>

- 일본건설사들은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여 동북지방에 도입하고 있음
 - 오오바야시구미(大林組)가 바닷물을 사용해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시멘트를 개발. 연안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

- 가시마(鹿島)는 폐기물의 분리·재생기술을 응용하여 80%이상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

〈일본건설사의 동북지방 인력증원 상황〉

기업	현재 인원	증원계획
가시마	600명	10%증가
시미즈건설	500명	20%증가
다이세이건설	410명	10%증가
오오바야시구미	320명	5%증가
고요우건설	100명	50%증가
미쓰이스미토모건설	125명	15%증가
마에다건설	300명	500명 이상으로
도큐건설	40명	2.5배
하자마	150명	67%증가

□ 시사점

- 동일본 대지진 복구수요는 전후 최대 규모인 17조 엔으로 예상되고 있어, 부흥수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복구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일본은행들은 건축자재나 작업도구와 관련된 업종, 피해지역의 부흥전략이 발표되면, 주택관련, 가재도구, 가전전자 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
- 우리 기업들도 동북지방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시장공략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
- 토목·건축분야의 수주 참여를 위해서는 일본의 해외건설협회, 대한설비협회 등 관련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시장

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

- 일본에서는 건설업 허가가 없을 경우 하청사업조차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음
- * 현재 일본에서 건설업 허가를 취득한 우리기업은 5개사(롯데건설, 삼성물산, 삼환기업, 삼미건설, 한샘)에 불과
- 따라서 부흥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일본의 파트너를 찾아서 M&A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 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함
-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으며 합작회사를 통해 일본의 부흥건설수요를 확보하고 우리업체들의 인력,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
- 우리정부도 「동북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한일협의회」 설치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피해 복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1.8). 「ゼネコン、東北に重点配置」

朝日新聞(2012.1.11). 「復興が好影響、今年の経済見通し」

한일재단,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한일 협력방안(2012.1)